http://dx.doi.org/10.5392/JKCA.2015.15.01.159

남성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연령군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Factors Affecting on the Prostitution Attitude of Men

전병주,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Byeong-Joo Jeon(okjbj@hanmail.net), Sang-Yong Yoon(syyoon@cbnu.ac.kr)

요약

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384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3개의 연령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과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은 '65세 이상' 집단보다 성매매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과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은 성 대처행동에서의 표현적 대처행동, 범죄 억제에서의 공식적 억제, 남녀평등의식, 근로활동 여부, 교육수준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60세 이상' 집단은 성 대처행동에서의 통제적 대처행동, 범죄 억제에서의 비공식적 억제, 부부관계만족도, 남녀평등의식, 건강상태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성의 연령군에 따른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성 대처행동 | 범죄 억제 | 성매매 |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384 men in the Chungbuk area and the effect of their attitude towards prostitution were analyzed. Subjects were divided into 3 age groups during the analysis and PASW Statistics 18.0 was used in material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ge group 'between 30 to 45 years of age' and 'between 45 to 60 years of age' displaye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prostitution compared to the age group 'above 65 years of age'. Second, factors that effect the attitude towards prostitution were shown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group. In the age group 'between 30 to 45 years of age' and 'between 45 to 60 years of age', expressive coping behavior in sex coping behavior, official suppression, sexual equality awareness, work status, level of education were shown to have an effect. In the group 'above 60 years of age', controlled coping behavior in sex coping behavior, unofficial suppression, rate of satisfaction in conjugal relation, sexual equality awareness, physical condition were shown to have an effect.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the fact that it was the first to suggest prostitution prevention measure depending on the men's age group based on these objective analysis.

■ keyword : | Sexual Coping Behavior | Crime Deterrence | Prostitution |

접수일자 : 2014년 11월 24일
수정일자 : 2015년 01월 06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1월 12일
교신저자 : 윤상용, e-mail : syyoon@cbnu.ac.kr

I. 서 론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 성매매 특별법 이라고 함)'이 제정되었다. 이 성매매 특별법은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 관련자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성매매 업소가 위축되고 성매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10년이 지난 2013년에도 성 구매에 대한 자제는 78.3%로 나타나 2006년의 76.9%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 더욱이, 이 조사의 응답자 중에서 56.7%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사기관에 단속된 성매매 위반 행위가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2] 여전히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성이라는 원초적 욕구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 구매자의 행동을 이해가 요구되며, 그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 대처행동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4]. 또한, 이런 성 욕구는 식욕이나 수면욕 등의 생존적 욕구와는 다르게 생리적·심리적 욕구는 물론, 관계적인 사회적 욕구가 통합된 욕구로서의 속성이 강하므로 개인의 특성은 물론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5]. 실제로 1990년대 후반에 IMF 경제위기로 인한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개혁 조치들이 성산업의 급속한 확장을 초래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6]. 더욱이, 직장에서의 본인 의사에 반한 퇴직 등으로 남성들의 불안 심리와 좌절감은 만연해졌다. 이런 과정에서 지나친 음주문화는 폭력 및 부부갈등으로 이어져 가족 해체를 초래하거나 조직에서 집단적 차원의 성매매를 하는 등의 병폐를 양산하게 되었다[7].

물론,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 성매매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나, 남성들의 성 구매 행위에 대한 통제로 작용함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93.1%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1], 성매매는 끊이지 않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것은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의 보다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노인들의 경우에는 건강한 생활이 노년기에도 지속되면서 성관계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사별과 이혼 등의 이유 및 여성 노인들의 성적 관심이 낮아 성관계를 기피하여 성생활이 가능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 이에 반해, 청장년층은 다양한 파트너와의 성관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갖거나, 술자리와 접대 등의 집단적 차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 결국, 남성들의 각 연령군에 따라 성매매를 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집단별로 다른 시각에서 성매매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특정 계층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일부 요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고[3][4], 연령군에 따라 비교하거나, 통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가족·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나아가 각 연령군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매매 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남성들의 연령군에 따라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 의사를 통하여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서의 불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되거나, 그 행위결과로 인한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이 예상될 때는 그 행위를 삼가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매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성매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정당한 욕구해소의 한 방편으로 인식하는 저변문화가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된다[9].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어 그 해에 6,425건이 단속되었지만, 2013년에도 7,533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1]. 더욱이, 최근에는 노인들의 성매매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2] 연령과 상관없이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 대처행동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성 가치관을 반영하여 자신의 성욕구에 영향을 미치므로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의 성 대처행동은 성적 욕구를 통제 혹은 표현함으로써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취하는 대처방식을 의미한다[10]. 이러한 대처방식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인 특성 및 성 가치관,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표출된다.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상처받은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과 '가부장적 권위'는 여성의 몸에 대한 지배를 통해 보상을 추구한다는 경험적 연구가 보고되었다[8].

또한, 성평등 의식이 성매매와 관련된 인식과 행동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1]. 여기서 남녀평등의식이란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며, 이런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성구매 경험자들이 무경험자들보다 남성 중심적 사고를 더 가지고 있고, 사랑 없는 성관계나 성매매, 외도 등의 성행동에 대해 보다 높게 허용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또한, 성평등 의식이 낮은 남성들이 성매매에 대한 편견이 높고 성 구매 경험도 많으며, 앞으로 성 구매를 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다음으로, 가족적 차원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 및 배우자 동거유무도 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3]. 이은진(2009)의 연구[6]에서는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남성들이 성 구매 경험이 없는 남성들보다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선행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김태완(2014)의 연구[4]에서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는 성매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은진(2009)의 연구[6]에서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 성매매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백수진(2008)의 연구[14]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성매매는 정신적·심리적 애정을 동반하지 않으며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애정관계나 부부관계의 해체를 덜 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는 성 문제를 음성화하고 성적 충동과 성범죄의 잠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적 일탈 행위, 성범죄, 성매매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15]. 더욱이, 남성들이 공식적 제재를 알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식한다면 처벌의 객관적 위협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16]. Paternoster et al.(1983) 연구[17]는 억제의 개념을 엄격한 법적·공식적 제재를 넘어선 비공식적 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가족과 친구의 비난, 자신의 양심과 도덕적 의무와 같은 비공식적 제제에 대한 인식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공식적 억제는 양심과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의 비난을 포함한 비공식적 제재에 의해 범죄 억제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18].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기업체 및 지역복지관 등을 찾아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조사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해서 2014년 1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2014년 5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445부를 배포하여 392부가 회수(회수율: 88.1%)되었으며, 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38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요인으로 성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을 조사하였다. 성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임순(2006)[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표현적 대처행동과 통제적 대처행동이 각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부부 또는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한다', '성행위 장면을 상상한다', '성행위가 묘사되는 영화를 본다' 등의 표현적 대처행동 6문항과 '바둑, 독서 등의 취미활동을 한다', '술이나 담배로 해소한다', '성적 자극 받는 것을 피한다' 등의 통제적 대처행동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각 요인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성적 표현성과 성적 통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나임순(2006)[19] 연구에서 표현적 대처행동과 통제적 대처행동의 Cronbach's α값이 각각 .77, .62이었고, 본 연구에서 각 요인별 Cronbach's α값은 .83, .74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녀평등의식은 김양희·정경아(1999)[11]가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척도를 정진경·양계민(2003)[12]이 수정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정생활 및 사회문화생활 영역의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각 요인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평등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진경·양계민(2003)[12]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7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적 요인으로 부부관계만족도 및 배우자 동거 여부를 조사하였다. 부부관계만족도는 '현재 부부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의 문항을 이용하였고 5점의 보기카드로 측정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직장 등의 이유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요인으로 범죄 억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고, 한성일(2013)[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내가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경찰에 적발될 것이다', '사회에서 성을 사도록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등의 공식적 억제 6문항과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가족, 친구와 멀어질 것이다',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다' 등의 비공식적 억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각 요인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범죄 억제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척도와 관련하여 한성일(2013) [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공식적 억제 영역 .96, 비공식적 억제 영역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억제 영역 .76, 비공식적 억제 영역 .8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나는 기회가 된다면 성매매를 할 것이다'의 문항을 이용하였고 10점의 보기카드로 측정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성매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개인적 요인(성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 가족적 요인(부부관계만족도, 배우자 동거), 사회적 요인(범죄 억제에 대한 인식) 및 성매매 태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성매매 태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 및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요인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 38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군을 살펴보면, '30세 이상~45세 미만' 142명(37.0%), '45세 이상~60세 미만' 137명(35.7%), '60세 이상' 105명(27.3%)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군 지역'이 183명(47.8%), '시 지역'이 199명(52.2%)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2년제) 졸업'이 102명(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학교 졸업' 92명(24.3%)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74명(19.5%)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05명(2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7명(25.9%)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29명(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5명(25.3%)으로 나타났다. 근로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94명(77.4%)이었고,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86명(22.6%)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
연령 (n=384)	30세 이상~45세 미만	142	37.0
	45세 이상~60세 미만	137	35.7
	60세 이상	105	27.3
지역 (n=381)	군 지역	182	47.8
	시 지역	199	52.2
교육 수준 (n=379)	중학교 졸업 이하	62	16.4
	고등학교 졸업	74	19.5
	대학(2년제) 졸업	102	26.9
	대학교 졸업	92	24.3
	대학원 재학 이상	49	12.9
건강 상태 (n=375)	매우 좋지 않다	70	18.7
	대체로 좋지 않다	97	25.9
	보통이다	105	28.0
	대체로 좋다	69	18.4
	매우 좋다	34	9.1
경제 상태 (n=375)	매우 좋지 않다	81	21.6
	대체로 좋지 않다	95	25.3
	보통이다	129	34.4
	대체로 좋다	33	8.8
	매우 좋다	37	9.9
근로활동 (n=380)	없음	86	22.6
	있음	294	77.4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의 수준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개인적 요인과 관련하여, 성 대처행동에 있어서 통제적 대처행동이 2.85(SD=.710)이었고, 표현적 대처행동이 3.31(SD=.667)로 나타나 표현적 대처행동이 통제적 대처행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평등의식은 2.88(SD=.827)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적 요인과 관련하여, 부부관계만족도는 2.84(SD=.791)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277명(73.1%)으로 나타나 직장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경우의 102명(26.9%)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하여, 범죄 억제에 대한 인식에서 공식적 억제 2.95(SD=.873), 비공식 억제 2.97(SD=.765)로 나타나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성매매 태도는 6.68(SD=1.536)로 나타나 성매매에 대해 보통 수준보다 높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M(SD)	Min	Max
성 대처 행동	통제적	2.85(.710)	1.00	5.00
	표현적	3.31(.667)	1.00	5.00
남녀평등의식		2.88(.827)	1.00	5.00
부부관계만족도		2.84(.791)	1.00	5.00
범죄억제	공식적	2.95(.873)	1.00	5.00
	비공식적	2.97(.765)	1.00	5.00
성매매 태도		6.68(1.536)	3.00	9.00

조사대상자들의 성매매 태도에 대하여 집단별 수준 및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우선, 연령군에 따른 성매매 태도를 살펴보면, '30세 이상~45세 미만'이 6.70(SD=1.56), '45세 이상~60세 미만' 6.78(SD=1.43), '60세 이상' 6.44(SD=1.60)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245$, $p<.05$). 거주 지역에 따른 성매매 태도는 시 지역이 6.88(SD=1.46) 이어서 군 지역의 6.47(SD=1.6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t=-2.592, p<.05). 교육수준에 따른 성매매 태도는 '대학원 재학 이상'이 6.42(SD=1.68)로 가장 낮았고, '중학교 졸업 이하'가 7.20(SD=1.49)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946, p<.01).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따른 성매매 태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좋다'와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각각 7.26(SD=1.67), 7.15(SD=1.4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6.28 (SD=1.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5.534, p<.001). 경제상태에 따른 성매매 태도를 살펴보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7.07(SD=1.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좋다'와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각각 6.41(SD=1.69), 6.46(SD=1.5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828, p<.05). 근로활동 여부에 따른 성매매 태도는 근로활동은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77(SD=1.53)로 나타나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더 높았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069, p<.05).

표 3. 성매매 태도에 대한 집단별 수준 및 차이

구분		M(SD)	t/F
연령	30세 이상~45세 미만 45세 이상~60세 미만 60세 이상	6.70(1.56)b 6.78(1.43)b 6.44(1.60)a	3.245*
지역	군 지역 시 지역	6.47(1.61) 6.88(1.46)	-2.592*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2년제)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7.20(1.49)b 6.72(1.52)ab 6.50(1.37)a 6.55(1.54)a 6.42(1.68)a	3.946**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6.28(1.37)a 6.39(1.49)a 6.63(1.46)ab 7.26(1.67)b 7.15(1.42)b	5.534***
경제상태	매우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7.07(1.59)b 6.78(1.52)ab 6.53(1.49)a 6.41(1.69)a 6.46(1.50)a	2.828*
근로활동	없음 있음	6.38(1.51) 6.77(1.53)	-2.069*

*p(.05, **p(.01, ***p(.001

3.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연령군으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Ⅰ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지역,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근로활동 여부 등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모델Ⅱ에서는 성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 등의 개인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고, 모델Ⅲ에서는 부부관계만족도, 배우자와 동거 여부 등의 가족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Ⅳ에서는 사회적 요인으로 범죄 억제에 대한 인식을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첫째,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Ⅰ에서는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5.7%로 나타났다. 모델Ⅱ에서는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 표현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Ⅰ에서 17.4% 유의미하게 증가한 22.0%로 나타났다. 모델Ⅲ에서는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 표현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Ⅱ에서 3.5% 유의미하게 증가한 25.1%로 나타났다. 모델Ⅳ에서는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 표현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 범제 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Ⅲ에서 5.3% 유의미하게 증가한 29.9%로 나타났다.

즉,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에서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중에서 성 대처행동에서의 표현적 대처행동, 사회적 요인 중에서 범제 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 근로활동 여부, 교육수준, 개인적 요인 중에서 남녀평등의식 등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6.013, p<.001).

둘째,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에 대한 결과를 살

펴보면, 모델Ⅰ에서는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9.0%로 나타났다. 모델Ⅱ에서는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 표현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Ⅰ에서 12.0% 유의미하게 증가한 21.0%로 나타났다. 모델Ⅲ에서는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 표현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Ⅱ에서 4.0% 유의미하게 증가한 24.6%로 나타났다. 모델Ⅳ에서는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 표현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 범제 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Ⅲ에서 5.5% 유의미하게 증가한 29.2%로 나타났다.

즉,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에서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중에서 성 대처행동에 있어서 표현적 대처행동, 사회적 요인 중에서 범죄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 개인적 요인 중에서 남녀평등의식,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 등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904, p<.001).

셋째, '60세 이상' 집단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Ⅰ에서는 건강상태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14.0%로 나타났다. 모델Ⅱ에서는 건강상태, 통제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Ⅰ에서13.0% 유의미하게 증가한 25.7%로 나타났다. 모델Ⅲ에서는 건강상태, 통제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 부부관계만족도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Ⅱ에서 6.0% 유의미하게 증가한 31.3%로 나타났다. 모델Ⅳ에서는 건강상태, 통제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 부부관계만족도, 범죄 억제에 대한 비공식적 인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Ⅲ에서 4.4% 유의미하게 증가한 34.7%로 나타났다.

즉, '60세 이상' 집단에서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중에서 성 대처행동에서의 통제적 대처행동, 사회적 요인 중에서 범죄억제에 대한 비공식적 인식, 개인적 요인 중에서 남녀평등의식, 가족적 요인 중에서 부부관계만족도, 건강상태 등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524, p<.001).

표 4.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30~45세)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β	t	β	t	β	t	β	t	VIF
지역			.152	1.712	.105	1.286	.080	.990	.078	.969	1.138
교육수준			−.162	−1.918*	−.167	−1.943*	−.165	−1.934*	−.160	−1.909*	1.291
건강상태			.011	.118	.017	.206	.037	.447	.054	.674	1.127
경제상태			−.029	−.326	−.036	−.423	−.005	−.056	−.022	−.269	1.210
근로 활동			.215	2.390**	.210	2.331**	.194	2.162**	.183	2.026**	1.063
개인적	성 대처	표현적			.285	3.185***	.277	3.066***	.272	3.051***	1.298
		통제적			−.117	−1.272	−.119	−1.280	−.107	−1.249	1.332
	남녀평등의식				−.168	−1.927*	−.164	−1.902*	−.154	−1.846*	1.365
가족적	부부 관계만족도						−.132	−1.401	−.137	−1.453	1.252
	배우자 동거						−.102	−1.206	−.099	−1.153	1.168
사회적	범죄 억제	공식적							−.222	−2.412***	1.201
		비공식적							−.150	−1.793	1.181
R^2			.102		.276		.311		.364		
Adj. R^2			.057		.220		.251		.299		
$\triangle R^2$					.174***		.035**		.053**		
F			2.245***		4.880***		5.166***		6.013***		

더미변수: 지역(군-0), 근로 여부(없음-0), 배우자 동거(비동거-0)
*p<.05, **p<.01, ***p<.001

표 5.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5~60세)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β	t	β	t	β	t	β	t	VIF
지역			.076	.852	.031	.391	.059	.726	.040	−.467	1.253
교육수준			−.179	−1.878**	−.170	−1.801*	−.174	−1.814*	−.168	−1.781*	1.083
건강상태			.150	1.597	.143	1.504	.128	1.303	.113	1.215	1.196
경제상태			−.167	−1.851	−.148	−1.817	−.152	−1.897	−.143	−1.520	1.054
근로 활동			.180	1.907**	.173	1.825*	.171	1.813*	.161	1.710*	1.108
개인적	성 대처	표현적			.290	2.815***	.292	2.862***	.277	2.755***	1.562
		통제적			−.102	−1.251	−.090	−1.112	−.068	−.854	1.084
	남녀평등의식				−.183	−1.916**	−.184	−1.935**	−.177	−1.839*	1.863
가족적	부부 관계만족도						−.145	−1.594	−.141	−1.540	1.152
	배우자 동거						−.120	−1.382	−.116	−1.242	1.376
사회적	범죄 억제	공식적							−.262	−2.345***	1.571
		비공식적							−.131	−1.432	1.720
R^2			.147		.267		.307		.362		
Adj. R^2			.090		.210		.246		.292		
$\triangle R^2$					.120***		.040**		.055**		
F			2.556***		5.270***		5.261***		5.904***		

더미변수: 지역(군-0), 근로 여부(없음-0), 배우자 동거(비동거-0)
*p<.05, **p<.01, ***p<.001

표 6.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60세 이상)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β	t	β	t	β	t	β	t	VIF
지역			.142	1.612	.137	1.564	.129	1.504	.132	1.519	1.138
교육수준			−.011	−.118	−.017	−.206	−.037	−.447	−.054	−.624	1.291
건강상태			.162	1.802*	.167	1.858*	.160	1.798*	.159	1.792*	1.127
경제상태			−.029	−.316	−.036	−.423	−.025	−.296	−.022	−.269	1.210
근로 활동			.115	1.290	.110	1.333	.094	1.162	.053	.662	1.063
개인적	성 대처	표현적			.119	1.330	.079	.872	.088	.994	1.298
		통제적			−.301	−3.285***	−.277	−3.141***	−.274	−3.077***	1.332
	남녀평등의식				−.197	−2.164**	−.191	−2.141**	−.186	−1.833**	1.332
가족적	부부 관계만족도						−.169	−1.873*	−.167	−1.861*	1.252
	배우자 동거						−.075	−.852	−.069	−.819	1.320
사회적	범죄 억제	공식적							−.132	−1.540	1.201
		비공식적							−.235	−2.412***	1.186
R^2			.191		.321		.381		.425		
Adj. R^2			.140		.257		.313		.347		
$\triangle R^2$					.130***		.060***		.044**		
F			3.788***		5.143***		5.651***		5.524***		

더미변수: 지역(군-0), 근로 여부(없음-0), 배우자 동거(비동거-0)
*p<.05, **p<.01, ***p<.001

V.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기혼 남성들을 3개의 연령군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연령군에 따른 성매매 태도의 수준 및 차이를 살펴본 결과,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과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이 '60세 이상' 집단보다 그 수준

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60세 미만' 집단이 성매매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별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집단별 성매매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거주 지역,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근로활동 여부 등에 따라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각 연령군에 따른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과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이 유사하지만, '60세 이상' 집단은 이전의 2개 집단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과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은 개인적 요인 중에서 성 대처행동에서의 표현적 대처행동과 남녀평등의식, 사회적 요인 중에서 범제 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근로활동 여부, 교육수준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로활동 여부가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에서 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개인적 요인 중에서 성 대처행동에서의 통제적 대처행동과 남녀평등의식, 가족적 요인 중에서 부부관계만족도, 사회적 요인 중에서 범죄억제에 대한 비공식적 인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건강상태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조사대상자의 남녀평등의식만이 각 연령군에서 공통적으로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에서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공통적이었지만, 성 대처행동의 하위요인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영향요인은 '60세 미만(30세 이상~45세 미만,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과 '60세 이상' 집단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녀평등의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은진(2009)의 연구[6]와 정진경·양계민(2003)의 연구[12]에서도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성매매와 관련한 편견이 낮고 성매매 의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구성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 의식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의식이나 규범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쳤던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 한국 사회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오랜 가부장제 역사와 연계되어 있어 단시일 내에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성 대처행동과 관련하여, '6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개인적 요인 중에서 성 대처행동에서의 통제적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은 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성문제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오래 동안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다양한 학습과정에서 형성된 편견 때문에 노인 스스로 성적 욕구를 억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들의 건강상태가 향상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성에 대해 보다 개방적으로 변화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은 성매매 처벌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는 상황에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의 공식적 통제보다는 가족, 친구 등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노인 자신의 인격적 평가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노인들은 성구매가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비공식적 제재에 대한 인식이 체포의 확실성이나 형벌의 엄격성을 통한 공식적 제재에 대한 인식보다 때로는 범죄억제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9]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60세 미만'의 집단에서는 범죄 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집단은 성매매에 보다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성매매 특별법에 의한 처벌과 성매매라는 범죄와의 관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집단에게는 성매매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타인과 사회에 해

악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그 역할을 못하거나 범죄에 비해 경한 형벌을 부과한다면 무질서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범죄 억제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고[21], 적어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는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30세 이상의 기혼 남성들의 성매매에 태도는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요인들이 상호 연관된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연령군에 따라 성매매 태도에 대한 영향 요인이 크게 상이하므로 각 집단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정책적 · 실천적 제언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집단에서 남성들의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 연령군에 따라 그 하위요인이 다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장년층의 표현적 대처행동이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성지식은 성 태도, 성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5], 사회적 관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한 책임성 있는 성적 행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편견 내지 주위의 시선 때문에 성적 욕구를 강제로 억제하여 성적 욕구 표출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여 사회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노인 집단을 위한 전용 성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성 욕구 표현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성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성매매하는 업소 및 여성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성들의 성매매라는 범죄에 대한 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60세 미만'의 집단에서는 공식적 제제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매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엄격한 집행이 요구된다[1]. 성 매수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의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고 피해자의 미래 삶, 피해와 그 가족들의 고통, 정신적 충격 등을 가중요소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6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범죄 억제에 있어서의 비공식적 인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족, 친구, 이웃 등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과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 감시 내지 부정적 시선에 대한 의식을 통하여 성매매 행위 차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교육과 더불어 전반적인 성평등 의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통하여 성별 고정관념이 완화되고 해체되어 평등의식이 확산되고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식의 전환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 고정관념과 왜곡된 사고는 수정될 수 있으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성 평등에 대한 법률이나 정책 등이 집행될 때, 법과 현실에서의 괴리가 발생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60세 미만'의 집단에서는 남성들의 근로활동 여부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장에서의 건전한 성 문화 및 회식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부부관계만족도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부부간의 정서적 조절과 함께 성적 자극을 수용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부 상호간의 성에 대한 보다 적

1) 성범죄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에 나오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형량이 평균 4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원이 쓰고 있는 양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극적인 표현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남성들의 연령군에 따라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몇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성들의 연령군에 따른 성매매 태도에 대해 실증적인 비교연구를 처음으로 진행하였고,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집단별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는 성매매의 방지를 위해서는 남성들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적·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성매매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

다만,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성매매 태도를 비교하거나, 성 문제는 극단적인 사적영역이므로 심층적인 면접을 함께 진행하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매매 태도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성매매 방지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 2014.

[2] 대검찰청, *양형백서,* 2014.

[3] 나임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성문제와 대안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2권, 제1호, pp.123-140, 2005.

[4] 김태완, “성구매 경험 남성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33권, pp.117-143, 2014.

[5] 김미숙, “일개 전문대학생들의 성 행동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5호, pp.252-259, 2010.

[6] 이은진, “성인 남성의 성 구매 경험에 따른 성매매와 성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5권, 제3호, pp.377-398, 2009.

[7] 김은경,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003.

[8] J. Kersten, "Culture, masculinities and violence against wome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36, No.3, pp.381-395, 1996.

[9] 한성일, “성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범죄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137-153, 2013.

[10] 방영숙, 남기민, “노인의 성태도와 성욕구 대처행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46권, pp.215-238, 2009.

[11] 김양희, 정경아,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사용설명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9.

[12] 정진경, 양계민,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인과 관련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8권, pp.53-75, 2003.

[13] 최유호, 김윤정, 김용미, “시설노인의 성태도, 성욕구가 성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pp.226-236, 2010.

[14] 백수진,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집, 제19권, pp.39-84, 2008.

[15] M. S. Jung and I. S. Na, "A study on the program development to educate the sexuality counsellors for the aged,"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13, pp.189-213, 2004.

[16] 민수홍, 박기석, 박광우, *범죄학이론,* 경기: 나남출판사, 2008.

[17] R. Paternoster, P. Gordon, and G. C. Theodore, "Perceived risk and social control," Law and Society Review, Vol.17, pp.457-480, 1983.

[18] R. P. Paternoster, "Assessments of risk and behavioral experience," Criminology, Vol.23, pp.417-436, 1985.

[19] 나임순, “노인의 성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6권, 제3호,

pp.547-563, 2006.

[20] 안상수, 김금미,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3권, 제3호, pp.299-324, 2008.

[21] R. L. Akers, *Criminological Theories,* 5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저 자 소 개

전 병 주(Byeong-Joo Jeon) 정회원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09년 8월 : 충북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2014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관심분야> : 노인복지, 보건의료, 사회보장

윤 상 용(Sang-Yong Yoon) 정회원

- 1997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사)
- 2009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회보장